

0-2 → 3-2

이동국이 쓴 드라마

전북, ACL 1차전 천적 가시와 격파

전반 2골 내주자 이동국 투입...투톱 전환 후반전 멀티골...가시와전 대역전극 주역



K리그1(클래식) 챔피언 전 북 현대는 올 겨울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시도했다. 선수 이적시장에서 손준호~홍정호 등 국가대표 자원들과 실력이 검증된 티아고~아드리아노 등 외국인 공격수들을 영입해 전력보강했다.

강한 스쿼드를 더욱 두텁게 한 이유는 2006~2016년 이후 2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아시아 클럽 정상에 위해서였다. 경쟁 상대팀들의 동향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중국 슈퍼리그에서의 폭풍영입이 사라졌다. 자국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노선을 택했다. 중동 클럽들도 '패닉 바이(불안 심리 탓에 앞뒤 가리지 않고 매점·매석하는 현상)'을 피한 지 오래다.

물론 전북이 수십억 자금을 쏟아 부은 것도 아니다. 손준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 혹은 FA(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 데려왔다. 현명한 접근이었다. 비용도 절감하고 전열도 풍성히 다진 전북 최강의 감독은 "아시아 평정에 나설 만 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가시와 레이슬(일본)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E조 홈 1차전을 향한 기대감이 높았다. 흥밋거리는 또 있었다. 징크스 타파, 가시와의 전북의 천적이다. 앞선 6차례 대결은 1무5패로 열세였다.

이를 의식한 최 감독은 "상대도 좋지만 우리

가 훨씬 강하다"는 말로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가시와는 감정이 있었다. 팀 조적력이다. 외국인 선수 1명을 보강한 것이 유일한 변화였다. 반대로 이는 전북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손발을 맞출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 국가대표팀의 터키 안탈리아 동계강화훈련의 여파다. 태극전사 7명을 배출한 건 분명 큰 자랑이지만 전원이 함께 땀 흘린 기간은 나흘에 불과해 걱정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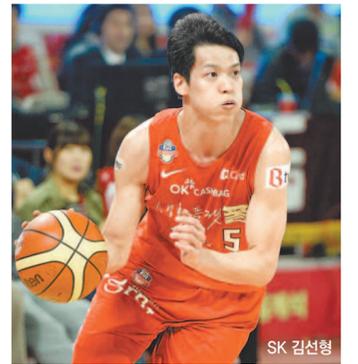
그러나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전원투입으로 총력을 선언했다. 여파가 뚜렷했다. 호흡이 맞지 않았고, 흐름이 자주 끊겼다. 뼈아픈 실책도 겹쳤다. 순식간에 2골을 내줬다. 최 감독은 즉각 대응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본 '캡틴' 신형민과 오른쪽 풀백 '부 주장' 최철순을 불러들이고 이동국, 이용을 투입해 투입으로 전환했다.

0-2에서 3-2로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나 믿고 쓰는 구관은 명관이었다. 후반 10분 이재성의 코너킥을 이동국이 헤딩골로 연결했다. 전북은 기세를 놓치지 않았다. 로페즈 대신 나선 티아고가 후반 30분 프리킥 한 발이 경합 과정에서 튀어 오르지 왼쪽 풀백 김진수가 시저스 킥으로 균형을 맞췄다. 후반 39분 홍정호의 패스를 문전에서 받은 이동국이 침착하게 감아 찬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동국은 AFC 통산 34골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 기록을 스스로 경신했다.

F조 울산 현대는 같은 날 뿔뿔히 빅토리(호주) 원정 1차전에서 3-3으로 비겼다. 외국인 공격수 오르사카 2골·1도움으로 맹활약했지만 3차례 리드 상황을 전부 지키지 못해 승리를 놓쳤다. 전북은 20일 키치(홍콩) 원정 2차전, 울산은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와 홈 2차전을 갖는다.

전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선형 재활 이상 무 '심리치료' 효과 특출

"마음이 편해졌다" 부상 트라우마 극복

서울 SK 정관장 프로농구 김선형 (30)은 요즘

코트복귀를 위해 몸만들기에 한창이다.

김선형은 지난해 10월 17일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원정경기 때 오른쪽 발목이 완전히 꺾이는 큰 부상을 당해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 회복 및 재활에 공을 들여왔다.

큰 부상을 당한 선수는 부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SK는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스포츠 심리치료 박사인 임동기 국민대학교 생활체육학부 지도교수를 초빙했다. 김선형은 1주일에 한 번씩 임 박사를 만나 심리치료를 해왔다. 효과는 기대이상이었다. 김선형은 "그동안 심리치료를 대해서 듣기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직접해보니 그 효과를 알았다. 부상이나 운동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임 박사가 워낙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 박사가 타 종목 선수들의 심리상태를 예로 들면서 재미있게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눈다"고 했다.

김선형의 심리치료를 돕는 임 박사는 역도선수 출신의 스포츠인이다. 종목은 다르지만 운동선수들이 겪는 고충의 이해가 높고 선수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임 박사는 "사실 처음 심리치료를 맡게 됐을 때는 큰 부상을 당한 선수여서 걱정을 했다. 하지만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부상 트라우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치료가 잠시 더뎠어도 본인의 재기의지도 강하다. 재활만 잘 이뤄진다면 예전의 기량을 되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활기간 동안 심리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김선형은 "재활을 마치고 코트에 복귀한 뒤에도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을 생각이다. 프로선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선형은 현재 민선 달리기와 슛 훈련을 소화하는 정도까지는 회복됐지만, 뒤 훈련을 소화할 정도는 아니다. 김선형은 "팀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고 주변에서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주변의 도움과 관심을 받아가는 것 같다. 회복이 잘되고 있다. 착실히 재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겠다"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KBL 새 외인 제도, 현장 목소리 제대로 담을까

사무국장 회의서 신장제한·출전시간 재논의 공감 안정적 제도 마련에 의견 일치...이사회 반영 주목

바스켓볼 브레이크

KBL 10개 구단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무국장회의는 최근 2차례 회의를 했다. 5일에 이어 12일에도 회의를 열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외국인선수 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 논의를 비롯해 KBL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느라 2차례 장시간 회의가 열렸다.

사무국장회의는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이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새로운 외국인선수 제도의 논의다. KBL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자유

선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선수 2명의 샐러리 캡은 70만 달러로 하고 2명의 신장을 200cm이하, 186cm이하로 구분해 뽑기로 의결했다. 출전쿼터는 기존과 같은 2명 합계 6쿼터다.

이는 김영기 총재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결과로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신장제한과 출전시간을 재논의 해야 하는데 많은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명분은 국내선수보호다. 리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선수들이 지배하는 리그보다 토종선수들이 활발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대학과도 연결된 문제다. 장기적으로 외국인선수의 출전쿼터를 지금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선수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좀 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 김 총재의 주장대로 단신 외국인선수가 영입돼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 인정했지만 단신 외국인선수 제도가 리그 흥행으로 연결됐다고 보기에 모든 마케팅 지표가 좋지 않았다.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사무국장 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때문에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이 곧바로 리그에서 반영될 수 없다. 심의·의결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회의의 결과를 얼마나 반영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사무국장 회의에 앞서 일부 팀은 프런트, 감독, 코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거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 일정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KBL 집행부와 이사회 멤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무국장 회의의 결과를 이번에는 제대로 심의하고, 의결할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OK저축, 한국전력 잡는다" 61%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14일 열리는 2017~2018 V리그 남녀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25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했다. 이 결과 국내 배구팬들은 남자부 한국전력-OK저축은행(2경기) 경기에서 원정팀 OK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의 승리예측은 61.11%로 나타

났고, 한국전력의 승리예측은 38.91%로 집계됐다. 세트스코어 예측은 2-3 OK저축은행 승리(26.60%)가 가장 높았다. 1세트 점수차는 3점차(25.67%)가 1순위였다.

여자부 KGC인삼공사-IBK기업은행(1경기) 경기는 원정팀 IBK기업은행 승리(66.55%) 예상이 KGC인삼공사 승리(33.48%) 예상보다 높았다. 세트스코어는 2-3 IBK기업은행의 승

배구토토 스페셜 25회차 중간 집계 "1세트 점수차는 3점차" 26% 1순위

리(34.09%)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세트 점수차는 5점차(23.73%)가 1순위를 차지했다.

배구토토 스페셜 25회차 게임은 14일 오후 4시50분 발매가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티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18.85%로 가장 낮았다. 전반전은 KB스타즈의 리드 예상이 35.89%로 앞섰다. 우리은행 리드 예상(32.55%), 5점 이내 박빙(31.57%)이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는 두 팀 모두 70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22.64%로 1순위였다.

이번 농구토토 W매치 38회차는 14일 오후 6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경기가 종료된 뒤 적중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건전한 베팅·건강한 토토를 부탁해

베티맨, 2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셀프 진단 등 참여 댄 경품 자동 응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티맨이 2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건강한 토토를 부탁해!'를 실시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베팅 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티맨이 운영하는 건전화 프로그램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는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성향을 진단해 게임 몰입도를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를 알아보고, 건전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의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가운데 1개 이상에 참여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삼성 공기청정기 블루스카이(1명)와 콜맨 캠핑의자 키백 브리즈 체어(10명), 네파 타일러 등산스틱(5명)을 준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티맨 사이트에서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베티맨 500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28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5일 베티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도/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KB-우리은행 박빙"

농구토토 W매치 38회차 중간 집계

국내 농구팬들은 14일 열리는 2017~18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KB스타즈-우리은행 경기에서 두 팀의 팽팽한 맞대결을 전망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

업자 케이토토는 14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7~18시즌 KB스타즈-우리은행 경기를 대상으로 농구토토 W매치 38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했다. 이 결과 전체 참가자의 43.36%가 10점 이내의 박빙 승부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홀합 KB스타즈의 승리를 예상한 참가자는 37.81%였고 우리은행의 승리를 예측한 참가자